

한국 세계대회 싹쓸이, 이창호에 달렸다

12개 세계대회중 한국팀 10개 타이틀 보유, 2개기전 우승만 남아 이창호, 춘란배·잉씨배 8강 이어 후지쓰배서도 4강...싹쓸이 도전

한국의 세계바둑대회 싹쓸이 우승이 이창호 9단의 활약 여부에 달렸다.

한국은 현재 10개의 대형 국제 대회의 우승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인정받는 세계바둑대회는 모두 12개이며, 남자 기전이 9개(단체전 1개)이고 여자 기전은 3개(단체전 1개)이다. 이 중 남자기전 7개와 여자 기전 3개의 타이틀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LG배, 도요타 덴소배, 삼성화재배, TV바둑아시아배 등 4관왕에 올라 있다. 이창호는 중환배, 박영훈 9단은 후지쓰배를 보유하고 있다. 단체전인 농심 신라면배도 현재 한국이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여자 기전은 박지은 9단이 원앙부동산배와 대리배를 차지했고 역시 단체전인 정관장배도 한국이 타이틀 보유국이다.

남은 타이틀은 경기가 진행 중인 후지쓰배, 응씨배, 춘란배 3개이다. 현재 춘란배는 중국 구리 9단이, 응씨배는 중국의 창하오 9단이 각각 타이틀 보유자이다.

이창호는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인 춘란배 8강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진출자들은 모두 중국 기사들이다. 이창호는 응씨배에도 4강에 올라 있다.

또 이창호는 후지쓰배에서도 8강에 진출한 한국 선수 4명 중 유일하게 4강에 올랐다. 이창호 9단은 지난 7월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벌어진 대회 8강에서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을 이겨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이로써 이창호는 춘란배·잉씨배(이상 8강), 후지쓰배(4강)에서 우승을 노리게 됐다. 이들 4대 메이저급 국제 개인전서 모두 살아있는 기사는 세계에서 이창호 뿐이다.

응씨배는 한국의 우승이 점쳐진다. 이창호를 비롯해 이세돌 9단과 최철한 9단도 올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자리를 쟁한 중국의 류싱 7단만 남으면 응씨배는 한국 기사의 몫이 된다.

문제는 춘란배와 후지쓰배이다. 유일하게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창호가 이 두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다면 한국은 모든 세계 기전의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전망은 밝다. 이창호는 구리 9단이 타이틀을 차지하기 전에는 두 차례나 이창호가 춘란배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 간다면 우승도 노려볼만 하다.

또 이창호가 오는 7월 5일 류싱 7단과 준결승전을 벌이는 후지쓰배는 한국이 10연패를 기록할 만큼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대회



이창호 9단(오른쪽)이 지난 7월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열린 제21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승리하는 모습. (사이버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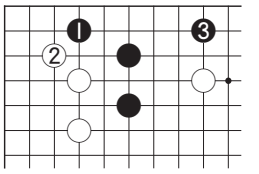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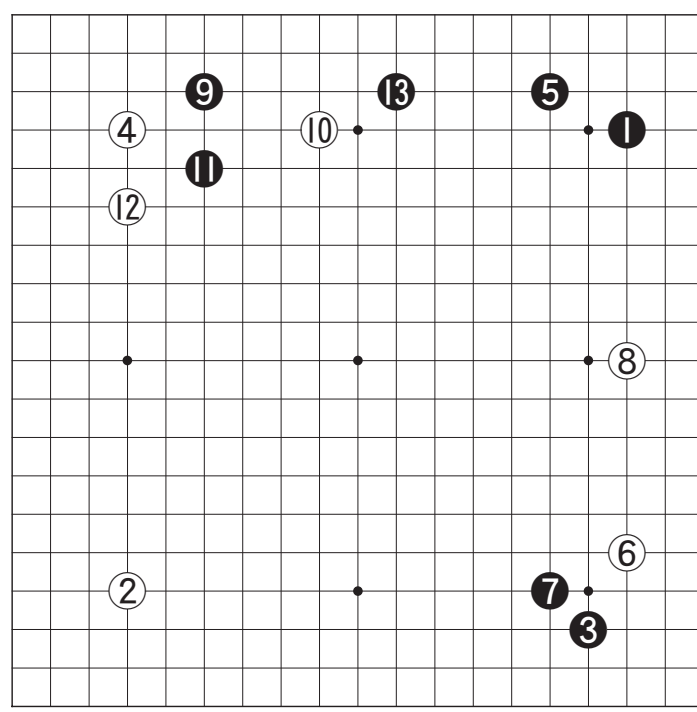
다. 이 대회에서 이창호는 최근 2연패를 당해 자신의 천적으로 불리는 요다 9단을 꺾어 그 어느때 보다 기세가 높다.

한국 바둑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세계 기전을 모두 휩쓴 적이 있다. 응씨배(이창호) 춘란배(유창혁) LG배 세계기왕전(이창호)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조훈현) 후지쓰배(조훈현) 삼성화재배(조훈현) 등 한국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바둑의 거센 도전으로 해마다 몇개의 대회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한국이 세계 기전 타이틀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열쇠를 쥐고 있는 이창호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외나무 다리 대결
2회전 2국 1보 (1~13)
白 김광식 5단 (주 송림) 黑 표정채 5단 (빛고을 교사회)



이번에는 2회전의 또 다른 화제국으로 빛고을 교사회의 표정채 5단과 (주)송림의 김광식 5단의 대국을 소개한다.

두 대국자는 1회전을 승리로 장식해 패조의 진군을 하고 있다. 이 바둑은 우승컵을 안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판으로, 이 대국에서 한명은 2승 또 한명은 1패를 안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다. 우승으로 가는 외나무 다리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다.

표정채 5단은 빛고을 교사회의 주전멤버로 그동안 직장대회에서 맹활약을 해온 맹장이며 김광식 5단은 이지역 아마바둑계의 최강자 중의 한명으로 왕년에 광일배 호남왕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일찍부터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강타자다. 전년도에는 1회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 우승이 좌절된 바 있어 올해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전했다고 한다.

표정채 5단의 살리지향 포석에 맞서 김광식 5단은 양화점으로 대항하고 있다. 흑 13은 '참고도'의 흑 3가지가 정석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일리있는 작전으로 보인다. <오규원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백목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목진석 9단, 97수만에 윤찬희 2단 꺾어

목진석 9단이 97수 만에 짜리 잡아내며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 계속되는 16강전은 16일 백승호 9단과 한상훈 3단의 대결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수장 9단과 박영훈 9단의 32강전도 같은 날에 속개된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조밀기 3회가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형회장배 전국 변호사 바둑대회

광주변호사회 우승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종돈·이하 광주변회)가 제3회 대한변호사회회장배 전국 변호사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

광주변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9개 지방회에서 총 56명의 회원이 참가해 단체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광주변회는 박경태·강행욱·이덕수·이정학·박철환 변호사의 환상 호흡을 내세워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준우승은 최영진·윤전준·노수환·고종찬·이기정 변호사로 꾸려진 인천변회가, 3위는 김광호·김학민 변호사 등이 출전한 서울변회 A팀이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의 전설

중국 최대 기전으로 부활

중국에서는 바둑을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는 뜻으로 '탄커'(爛柯)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국이 최근 란카배바둑대회에 자국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내걸었다. 설하 속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던 바둑의 옛 명칭이 중국 최고 기전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중국기원은 13일 "몇몇 프로 기사들을 불러 바둑을 두게 했던 소규모 초청 기전이었던 란카배를 우승상금 50만위엔(한화 약 7000만원)이 걸린 거대 기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란카배는 2006년 제1회 때는 천주더 9단, 네웨이핑 9단, 마사오춘 9단, 위빈 9단, 창하오 9단, 구리 9단 등 8명이 출전하는 초청기전이였다. 당시 위빈이 우승했지만 상금은 15만위엔이었다. 준우승을 차지한 구리에게는 고작 8만위엔이 주어졌을 뿐이다.

바둑의 옛 명칭을 표방한 대회치고는 상금이 적었기에 참가배를 뛰어넘은 상금을 내걸고, 자국의 랭킹에 따라 본선 시드를 부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형 기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번 대회는 랭킹 20위권 이내의 기사와 인터넷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8명 특별초청자 2명 등 총 32명이 본선 토너먼트를 벌이게 된다.

한편 중국 진(晉)나라 시대에 왕질(王質)이 석실산(石室山)에서 나무를 하다가 두 동자(童子)가 바둑두는 것을 보고 지켜보게 됐다.

대국이 끝난 뒤 왕질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도끼자루가 이미 썩어 있었고, 몇 백년이 흐른 뒤였다고 해서 '신선놀음(바둑)에 도끼자루가 썩는다'는 말이 나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다려라 이세돌"

목진석·박정상 등 국수전 도전자 속속 가려져

이세돌 9단에 맞서 제52기 국수전 타이틀에 도전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기원은 13일 "최근 열린 이 대회 예선결승전에서 총 12개조 예선 가운데 11명의 본선진출자가 가려졌다"고 밝혔다.

최종 예선전에서 목진석·김성룡·박정상 9단, 이영구·안달훈·김주호 7단, 고근태 6단 등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또 김기용 4단 그리고 LG배에서 중국의 스위에 4단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한 김형우 2단이 본선에 합류했다. 초단 돌풍을 몰고 온 강유택, 이현호 초단 등도 본선에 올랐다.

총 12명의 예선 통과자 중 TV바둑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목재나무, 인삼, 수박, 연꽃, 인삼, 인삼, 인삼
- 녹차,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아연의 보충
*사물인터넷(사물인터넷) 02-11-1111-1111